

박○별 (환자 이름,나이, 환자번호 기입)

3년 전부터 콧물, 코막힘, 기침 후에 호흡곤란이 생겨서 이와 관련된 추가 검사 위해 외래 방문한 30세 여자환자입니다.

⇒ C.C 자체는 이번 병원을 방문한 직접적인 이유를 말하는데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환자가 가지고 온 의뢰서의 C.C은 “비용종에 대한 further evaluation”이었어요. 근데 이비인후과를 간 이유 자체가 비용종을 본인이 발견하고 간 것이 아니라, 코가 막히고 숨이차고 답답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게 더 맞을 것 같아요. ‘1달전부터 발생한 코막힘, 가슴답답함, 호흡곤란’ 등이 좋을 것 같아요.

3년 전 6월, 임신 27주에 이사를 하면서 먼지를 많이 마시고 오후 9시경에 맑은 콧물이 흐르는 것으로 시작해 코가 막히고 기침을 하며 맑고 끈적이지 않는 가래가 나오면서 점점 숨이 차서 응급실 방문한 병력이 있습니다. 당시 한 문장 정도는 숨을 끊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응급실에서 측정한 ABGA에서 pO<sub>2</sub> 68.4, pCO<sub>2</sub> 29.8%로 감소 되어 있었고, total IgE 523으로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WBC count 9400/ul, Eosinophile은 3.4%로 정상이었고, **Phadiatop test(incidence 가 높은 allergen 8개를 모아서 test IgE – 이거 + 먼 아토피)**에서 positive 소견 보였습니다. 당시 ER에서 O<sub>2</sub>, ventolin nebulizer, budesonide respule 흡입, ipratropium (500mcg/sml) 1ample 치료받고 증상 완화되어 퇴원하였으며 Montelukast 10mg/T 1회 2일, Chlorpheniramine 2mg/T 3회 2일, Symbicort 320 1개 퇴원약 처방하였고, 외래 방문 권유하고 퇴원 조치하였습니다. 그 후 7일 뒤에 외래에서 시행한 PFT상에서 FEV<sub>2</sub>.82L (94%), 확장제 투여 후 FEV<sub>1</sub> 3.06L (102%)였습니다. 그 후 budesonide nasal spray (50mcg/d, 1회 200dose) cetirizine 10mg/tab 42일치 처방 받았으나 Follow up loss 되었고, 환자 더이상 치료받지는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기관지 가역성을 찾을 수 있는 거: Mbpt, pef가능)

⇒ 선생님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근데 의학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이 부분은 수정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환자가 우리병원을 방문했다고 하지는 않고 외부병원 응급실 방문이력만 2차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선생님이 표현한 “한 문장 정도는 숨을 끊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정도” 이런 표현은 굉장히 좋아요. ^^, 추가로 첨언을 하자면 이 말을 하면서 소아때 썩썩거리거나 천식 진단은 받지 않았다고 표현을 넣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 당시 구체적인 검사 결과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응급실 방문했고 당시 산소와 네불라이저 치료를 받고 증상 호전되어 퇴원했다고 하며 당시 symbicort를 처방받았다고 합니다. (김미경 교수님이 용량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환자분한테 숫자로 80, 160, 320 중 어떤 거냐고 물어봤는데 환자가 기억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symbicort 인줄 아냐고 물어보시면 길다란거 받았다고 이야기해서 모형을 보여줬더니 symbicort를 골랐다고 하세요.

⇒ 미리 말했던 것처럼 이후 외래 방문하진 않고 f/u loss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응급실에서 처방받은 symbicort는 2주 정도 사용했다고 하며, 이후로는 증상 호전되어 치료 받지

*않았다고 하며 분만 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었다고 하세요.*

2년 전 10월 코막힘, 콧물, 기침 후에 호흡곤란이 와서 ER방문하였습니다. 환자는 증상 시작 전 오후 1시 집청소를 하면서 먼지를 많이 마셨다고 했고, ER방문 당시 한 문장을 한 번에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숨이 찼다고 합니다. 환자 이 때 모유 수유 중이었고 모든검사 refuse하고 모유 수유에 영향이 없는 약만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고 하며, SaO2 96% check되었고, ventolin nebulizer chlorpheniramine 2mg/t 3회 3일, Ebastine 10mg/t 1회 3일 약 치료 하고 퇴원하였습니다.

⇒ *대략적인 시간을 계산해서 분만 후 몇 달 후인지를 기입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병원 응급실 방문했다는 표현은 없애고 당시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후 증상 호전되어 퇴원했고 당시에는 ventolin만 처방받았다고 합니다...로 표현해요.*

1달 전 날씨가 추워질 때 코가 막히기 시작해서 로컬 내과와 이비인후과 방문하였을 때 nasal polyp이 있고, 천식이 의심된다고 큰 병원 방문 권유 받았으며, ventolin 처방받았다고 했습니다.

⇒ *코가 막히고 가슴 답답함, 기침이 발생해서 local 내과 병원 방문시 천식 조절되지 않아 이에 대한 평가 필요하다는 말 들었다고 하며 Ventolin을 처방받았다고 합니다. local 이비인후과에서는 코에 물혹이 있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환자는 평소 일교차가 커지는 시기, 강아지, 고양이를 만나면 발작적으로 다섯번 이상 재채기를 하고 맑은 콧물이 나고 코막히는 증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증상이 잘 나타나는 계절을 꼽을 수는 없고 여름에는 그나마 괜찮다고 했습니다.

⇒ *'강아지, 고양이'에 대한 표현은 뒤쪽에 있으니까 제외합니다. '환자의 비염 증상은 일년내 내 지속되지만 여름에 덜하다고 표현하였고, 봄, 가을에 심하지만 겨울에도 비슷한 정도로 지속된다고 합니다.' 일교차에 대한 표현은 빼는게 좋을 것 같아요.*

⇒ *전체적인 순서를 보니까, 이건 뒤쪽 ROS 파트로 옮기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과거력상 어릴 때 썩썩거려서 병원에 입원한 적은 없으나 운동을 할 때 또래보다 숨이 더 찼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생새우가 입술에 찢리면 입술이 부어오르고, 계장을 먹으면 목이 붓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 때 쉰 목소리가 나거나 숨이 막히거나 실신을 한 경험은 없다고 했습니다. 또 두드러기가 난 경험은 없다고 하고 약을 먹어서 특별한 반응이 나타났던 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 *운동을 할때라는 표현이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여자분이니까 운동 이라고 하는게 학교에서 하는 일상적인 체육 활동인 것 같은데.. 운동장을 천천히 한바퀴 정도 뛴 때, 남들보다 숨이 차고 호흡곤란 때문에 뒤쳐졌다.. 뭐 이런 표현도 좋을 것 같*

⇒ 생새우가 입술에 찢리면 입술이 부어오르고, 계장을 먹으면 목이 붓는 느낌이 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생겼는지를 comment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환자분이 외래 볼 때 20대 중반 정도부터 증상이 생겼다고 하고, 코 관련 증상은 20대 초반에 생겼다고 했거든요. 그럼 순서가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비염 증상이 생긴 후 oral allergy syndrome이 생겼다가 되기 때문에 말이 연결이 됩니다. ^^

직업은 주부고, 술 담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환자 시댁에서 닭, 강아지, 고양이를 기르는데, 시댁에 갈 때마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가 심해서 동물을 격리 시킨 후에는 지내기에 불편함은 없다고 했습니다.

환자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밤에 기침을 하며 깨거나 코가 막히고 가슴이 답답한 듯이 느껴져서 잠에서 깨었고, 그 다음날 주간에도 머리가 무겁고 피곤함을 느끼나 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다고 했습니다. ventolin을 사용하면서 지냈고, 최근에 일주일에 2~3일 정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코골이는 없고, 입을 벌리고 잔다고 했습니다. 눈이 가려운 증상은 없었습니다.

내원 당일 시행한 skin prick test에서 Histamin이 5.5x5.5였고, 집먼지 진드기가 D. farinae가 22x9.5로 (++++), D.pteronyssinus가 (++++), 21x14.5, cat 16.5x14, rabbit 17x12 (++++), 였고 증상을 나타냈던 dog는 4x4 였습니다.

폐기능 검사 및 기도 가역성 검사에서 FEV1이 1.65L (55%) 였고, 기관지 확장제 뿌린 후 측정된 FEV1은 2.03L (67%)로 23%, 380ml 증가하여 기도 가역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기관제 확장제인 벤틀린을 2회 뿌리고 10분 후에 측정함...

또 PNS 에서 양쪽 maxillary sinus에 mucosal thickening 이 보였고, 왼쪽이 좀 더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mucosal thickening in both maxillary, ethmoid sinus, mild.

⇒ *ethmoid sinus에 대한 표현은 빼세요.*

이에, 환자는 처음 방문하였고, 환자의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GINA guideline step3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symbicort 160 x 2 puff bid with SMART (budesonide+formoterol) (((Ranitidine 2회 5일 anti ulcer,))) Montelukast (류코트리엔 조절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걸 말하기 전에, 환자의 진단을 정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상환 history 및 P/Ex, 그리고 초기 검사 결과, 알레르기성 천식 및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부비동염을 진단하였고, 새우, 게에 대한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 또한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 *그리고 천식에 대해서는 inhaled corticosteroid인 budesonide 160mcg과 와 long-acting beta-agonist인 formoterol 4.5mcg이 같이 들어있는 symbicort 160을 처방하였고 하루에 2번, 한번 사용할 때 2회씩 흡입하라고 지시하였고 환자분께는 symbicort 사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환자 일주일째 4일 이상, 4주동안 증상이 있고, 잠을 자다가 깨긴 하지만 주간 활동에 제약이 없다고 하여서 persistent-mild 알레르기 비염으로 의심되어 콧물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Ebastine/pseudoephedrine 1회 14일 (H1 receptor antagonist + sympatomimetics) 코막힘 증상 개선 및 항염증작용으로 Ciclesonide nasal spray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사용 후 1달 후 다음 방문 때 흡입기를 가져오도록 하여 사용방법과 순응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Prednisolone 5mg/T 2회 14일

Lafutidine 10mg/t 2회 14일 - antiulcer

Cefditoren pivoxil 100mg/T 3회 14일 - 3세대 cephalosporin antibiotics

⇒ *이건 이비인후과 쪽으로 그냥 돌립시다. 비염 및 부비동염에 대해서는 당일 ENT 외래를 같이 다녀왔고, 다음과 같은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 *그리고 외래 f/u일은 환자 사정으로 1달을 잡긴 했지만, 초진 환자를 1달 이후에 오라고 하는게 적절한 것은 아니에요. 2주 후 방문하기로 했다고 합시다.*